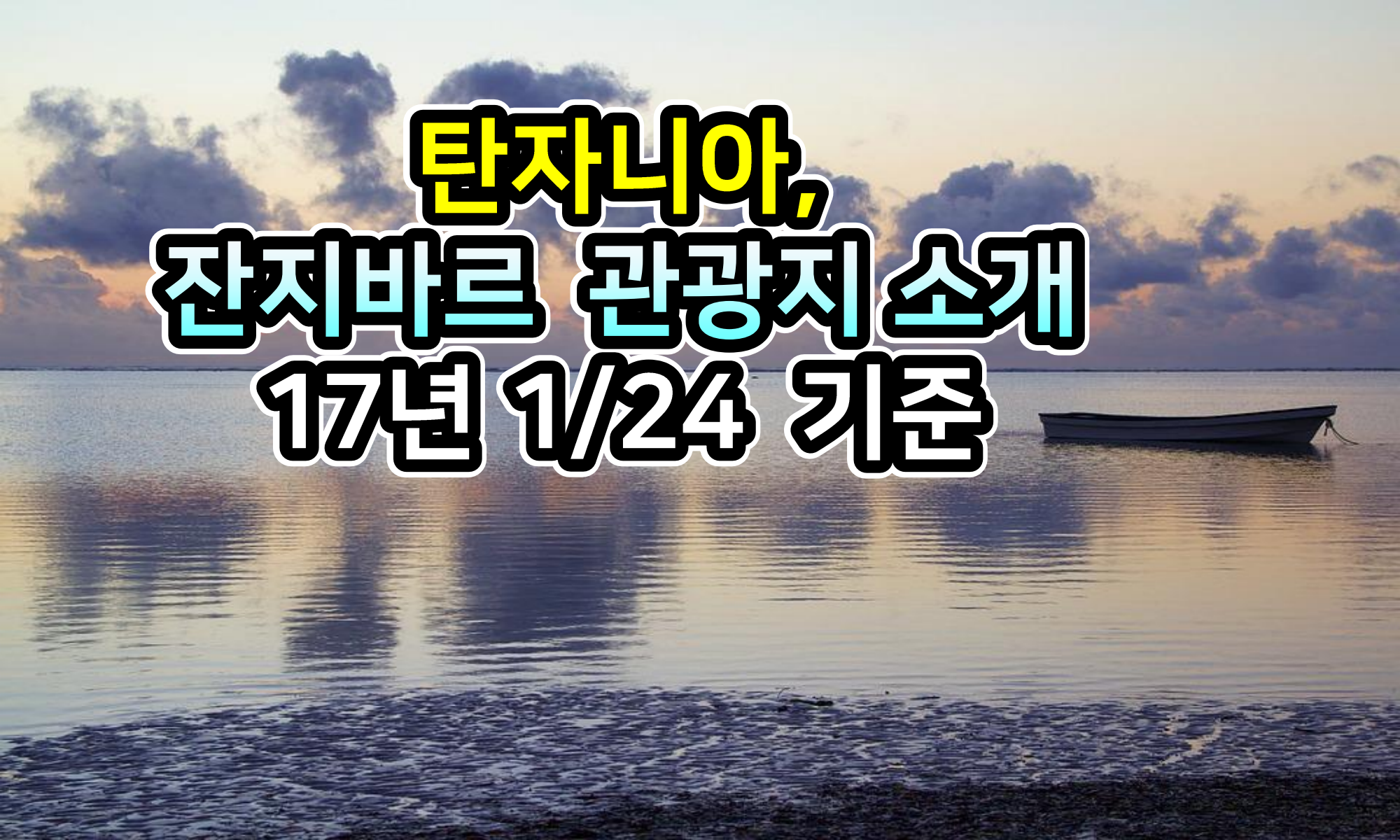

탄자니아, 잔지바르 관광지 소개 17년 1/2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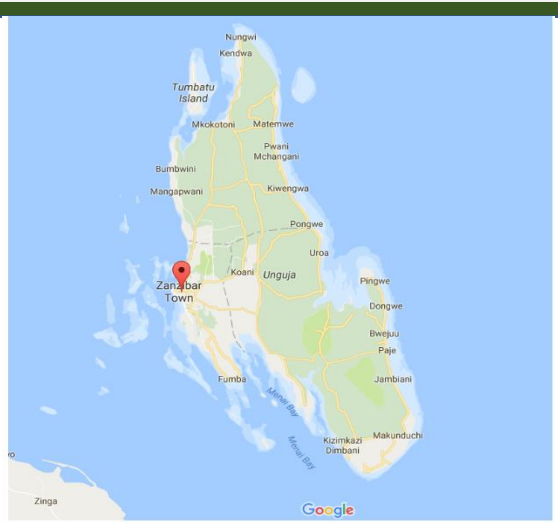

그림1. 잔지바르 지도(북쪽 섬이 펨바, 남쪽 섬이 웅구자임)

1. 잔지바르 소개

탄자니아의 대표적인 휴양지, 잔지바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관광대국인 탄자니아의 3대 관광지를 꼽으라면 세렝게티, 킬리만자로 그리고 잔지바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잔지바르는 유럽인들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동아프리카 최고 휴양지로, 하얀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닷물이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잔지바르는 웅구자(Unguja)섬과 펨바(Pemba)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지바르 인구의 약 90%이상이 무슬림입니다. 다레살람 북동쪽에 위치하며, 다레살람에서 갈 경우, 비행기로 20분, 배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잔지바르는 최초에 아프리카 반투(Bantu)족이 들어와 정착하였으나, 7세기경 페르시아인들이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인도를 아우르는 무역항으로 사용하고자 페르시아계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잔지바르에 도착하여 잔지바르 주민들을 보고, 페르시아어로 Zanzi(검은) + Bar(해안) 즉, Zanzibar(검은 해안)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지바르는 아름다운 휴양지이지만, 그 내면에는 노예로 고통 받았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지바르는 19세기 중엽, 오만 제국의 수도였으며 동아프리카 내륙에서 잡아들인 노예들을 중동으로 보내기위해 거쳐야하는 경유지이자 노예무역의 최대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리빙스턴 등 노예제 반대 운동가들의 주 활동무대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1890년 이후 오만과 영국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잔지바르는 영국 보호령으로 귀속되었고 1963년에 독립하였습니다. 1964년 탕가니카(탄자니아 내륙)와 합병하여 오늘날의 탄자니아합중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잔지바르는 탄자니아 내륙과 별도의 대통령과 내각을 갖고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지바르 출입국시 여권을 필수 지참해야하며, 출입국 카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는 잔지바르가 개별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2. 잔지바르 앵글리칸 대성당에 있는 노예 동상

그림3. 스톤타운의 골목길. 잔지바르만의 독특한 건축양식을 볼 수 있다.

잔지바르는 천 년이 넘는 세월동안 향신료와 노예무역 및 중계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해왔으며 아프리카, 인도, 아랍, 유럽의 문명이 혼합되어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잔지바르의 역사는 잔지바르의 수도인 스톤타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식 건축물과 좁은 골목길에 마주한 섬세한 문양으로 꾸며진 대문들, 노예시장 유적지, 술탄의 왕궁, 오만제국의 요새, 이슬람 사원 등,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만큼 아프리카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아시아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잔지바르 스톤타운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 다레살람-잔지바르 교통수단

2-1. 선편

○ 킬리만자로 아잠 페리(Kilimanjaro Fast Ferries)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며, 빠르고 편리합니다. 다레살람 페리 선착장은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티켓 예약이 가능하지만 구매는 현장에서 해야 합니다. 예약한 시간의 출발 3시간 전까지 사무소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결재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티켓 구매 및 출입국 시 여권을 필수 지참해야 하며 수화물은 1인당 25Kg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거주비자 혹은 워킹퍼밋이 있을 경우 거주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운임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며, 잔지바르 페리 선착장에 도착한 후 스톤타운의 중심가인 올드포트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림4. 킬리만자로 아잠 페리의 모습

- 시간대

다레살람-잔지바르	오전 7시	오전 9시 30분	오후 12시 30분	오후 3시 45분
잔지바르-다레살람	오전 7시	오전 9시 30분	오후 12시 45분	오후 4시 00분

- 가격 ($1 = 2200tsh, 2017년 1월 기준)

분류		이코노미	비즈니스	VIP	로열
거주자	어른 (10세 이상)	25,000 tsh	35,000 tsh	50,000 tsh	60,000 tsh
	어린이 (10세 이하)	10,000 tsh	35,000 tsh	50,000 tsh	60,000 tsh
비거주자	어른 (10세 이상)	$ 35	$ 35	$ 50	$ 60
	어린이 (10세 이하)	$ 25	$ 35	$ 50	$ 60

- 홈페이지: www.azammarine.com

2-2. 항공편

○ 다레살람 국제공항 출발: Precision Air, Fastjet 등
○ 다레살람 국내공항 출발(구 공항, Terminal 1): Coastal Aviation, Auric Air, Flightlink, Zan Air 등
- 각 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예약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외국인)에 따라 가격이 차이나는 항공사들이 있는데, 거주비자 혹은 워킹퍼밋이 있을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운임시간은 총 20분 정도 소요되며,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와 다르게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경비행기입니다. 국내선 공항(Terminal 1)은 줄리어스 니에레레 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 잔지바르 주요 관광지 소개

3-1. 스톤타운 (Stone Town)

그림5. 측면에서 바라본 올드포트의 모습. 축제기간에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 올드포트(The Old Fort) : 잔지바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입니다. 17세기 오만인들이 포르투갈로부터 잔지바르를 지키고자 건설한 요새입니다. 높은 석조벽이 사각형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매년 2월에는 음악축제, 매년 6월에는 국제영화제가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 잔지바르 음악 축제(Sauti za Busara): 매년 2월, 4-5일 동안 올드포트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음악 축제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여행자들이 모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다국적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룹니다.
- 축제 일정: 2017년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예정
- 홈페이지 주소: www.busaramusic.org

○ 잔지바르 국제 영화제(ZIFF): ZIFF는 매년 6월 잔지바르에서 펼쳐지는 국제 영화제로서 약 7일 동안 스톤타운에서 열리고 단편, 장편,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약 100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또한 전시회, 문화 공연, 음악제 등의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됩니다.
- 축제 일정: 2017년 7월 8일부터 16일까지 개최예정
- 홈페이지 주소: www.ziff.or.tz

그림6. 포로다니 공원에서 매일 밤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야시장이 열린다.

○ 포로다니 공원(Forodhani Park): 올드포트 바로 앞에 위치한 공원으로, 노천카페가 있어서 바다를 보며 커피와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 축제기간 동안에 포로다니 공원에서도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며, 해가 저물면 열리는 야시장에는 잔지바르식 피자, 각종 해산물, 꼬치요리, 사탕수수 주스 등을 판매합니다.

그림7. 앵글리칸 대성당 전경

○ 앵글리칸 대성당 (Anglican Cathedral Christ Church): 1873년부터 10년간 지어졌으며 동아프리카 초기 기독교 시대를 대표하는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 고딕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혼합되어 독특한 건축양식이 탄생되었습니다. 대성당이 위치한 자리에는 과거 가장 큰 노예시장이 있었던 곳으로, 이 성당의 본래 건설목적은 노예제 폐지를 축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당 앞에는 노예를 형상화한 동상들이 있습니다. 진입로에 과거 노예시장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노예들이 팔려가기 전 머물렀던 지하 감옥도 견학할 수 있습니다.

○ 나쿠펜다 비치 (Nakupenda Beach): 스톤타운, 올드포트 주변에서 보트를 타고 30분 정도 바다로 나가면 모래로만 이루어진 나쿠펜다 비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하얀 모래와 맑은 에메랄드빛 바닷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랍스터와 오징어 같은 해산물도 맛볼 수 있습니다.
- 왕복 보트이용료: $30 내외

그림8. 프리즌 아일랜드에서 서식하는 대형거북이들. 가장 나이가 많은 거북이는 192살이라고 한다.

○ 프리즌 아일랜드(Prison Island): 1860년대 반항적인 노예들을 가두던 감옥의 흔적이 남아있는 섬으로 1893년 영국의 장관이 이 섬을 구입했습니다. 이 섬은 황열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형거북이들이 사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거북이의 역사를 소개하자면, 1919년 세이셸의 영국정부가 알다브라의 대형거북이 4마리를 이 섬에 선물하였습니다. 1955년 거북이가 200마리까지 번식하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해외에 수출하고자 훔치기 시작했고, 개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잔지바르 정부는 대형거북이를 보호하고자 세계동물협회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서식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알다브라 대형거북이는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생물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 소유의 섬으로, 올드포트 주변에서 30분 정도 보트를 타고 갈 수 있으며 숙박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북이에게 먹이를 주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왕복 보트이용료: $30 내외
- 거북이 서식지 입장료: $4

○ 향신료 투어 (Spice Tour): 잔지바르는 오래 전부터 '향신료의 섬'으로 유명했습니다. 향신료 투어를 신청하면 향신료 농장을 방문하여 계피, 생각, 바닐라, 샤프론, 정향, 카카오 등 수 백가지의 다양한 향신료들의 재배과정을 보며 직접 맛보고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 투어비용: $45 내외(여행사마다 상이함)

3-2. 주요 해변 휴양지

○ 능귀(Nungwi): 잔지바르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톤타운에서 버스 혹은 택시를 타고 이동 가능합니다(1시간 30분소요). 바닷물이 깨끗하고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등 각종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서 많은 외국 여행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가면 해양보호구역인 음넴바(Mnemba)섬에서 스쿠버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9. 파제 해변가. 눈부신 하얀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어우러진다.

○ 파제 (Paje): 잔지바르 동쪽의 조용한 해변가로 버스 혹은 택시로 이동 가능합니다(1시간 30분소요). 해초 재배지역이기도 하며 카이트 서핑과 같은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 키짐카지 (Kizimkazi): 잔지바르 남쪽 끝에 있는 곳으로 돌고래 투어가 유명합니다. 보트를 타고 1시간 정도 바다로 나가, 스노클링 장비를 쓰고 돌고래와 함께 수영할 수 있으며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프데이 투어가 적절합니다.
- 투어비용: $30 내외(여행사마다 상이함)

3-3. 조자니 숲 (Jozani Forest Reserve)

잔지바르 중앙에 위치한 숲으로, 멸종위기의 잔지바르 붉은 콜로부스 원숭이(Zanzibar Red Colobus)가 유일하게 서식하는 곳입니다.

- 투어비용: 하프데이 70불 내외

그림10. 조자니 숲에 사는 잔지바르 붉은 콜로부스 원숭이의 모습

4. 참고사항

○ 잔지바르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만큼 라마단 기간(금식 기간)에 스톤타운 시내를 여행할 경우, 낮 동안에는 길거리에서 식음료를 자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 스톤타운이나 능귀 등의 관광지는 관광객이 많은 만큼, 호객행위가 잦으므로 도난과 사기행위를 경계해야하며, 해가 진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 잔지바르는 콜레라가 발병했던 지역으로, 길거리 음식의 위생 상태를 항상 주의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 한인 게스트하우스: (위치)Mombassa, Zanzibar(공항 7분 거리), (연락처) +255 778 882 336, +255 784 161 171

출처 : 주 탄자니아 한국 대사관 (170124)

[공지] 여행 직거래 플랫폼 '여행거래소' 안드로이드용 (갤럭시 핸드폰) 앱 설치 안내

GET IT ON Google Play

' 여행거래소 ' 검색 후 설치

-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
-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
-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
- 현지 생생정보
-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

'아이폰'용은 없어요 (개발하지 않음)

www.GV10.com 참고